

KIA 속터지는 '볼넷쇼' 한화전 승리 날렸다

2연전 사사구 18개... 1무 1패



KIA 타이거즈가 속터지는 '볼넷쇼'로 최하위 한화 이글스에 1무 1패를 기록했다.

KIA가 5일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열린 한화와의 시즌 10차전에서 5-5 무승부를 기록했다.

3-1로 앞선 4회 사사구 5개를 남발하며 3-4 역전을 허용했고, 7회 황대인의 역전 투런이 나왔지만 마무리 정해영이 시즌 4번째 볼넷을 기록하면서 승리는 쟁기 못했다.

4일에도 사사구 10개로 2-6패를 기록하는 등 KIA 마운드는 주말 2연전에서 무려 18개의 사사구를 남겼다.

주말 2연전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최하위 한화와 4경기 차까지 좁혀졌다. 8위 롯데는 3.5경기 차로 멀어졌다.

지난 1일 두산과의 더블헤더 1차전 선발로 나왔던 윤중현이 3일 휴식 뒤 다시 선발로 출격했다.

1회말 선두타자 정은원에게 우전 안타를 맞은 윤중현이 최재훈을 3루수 직선타로 잡았지만 하주석에게 다시 안타를 허용했다. 김태연을 볼넷으로 내보내면서 1사 만루, 페레즈의 우전안타로 선취점을 내줬다.

이어 홈으로 들어오던 하주석을 잡아내면서 투아웃. 최인호의 2루 땅볼로 추가 실점은 없었다.

2회초 KIA가 바로 승부를 뒤집었다.

무사 1루에서 박찬호의 번트안타가 나왔고, 한승택의 볼넷으로 베이스가 가득 찼다. 김호영이 삼진으로 몰려 낚지만 최원준이 한화 루키 김기중을 상대로 2타점 적시타를 날려 2-1을 만들었다.

KIA는 3회 2사에서 터커의 안타와 김태진의 3루타로 1점을 보탤다.

1회 위기를 넘긴 윤중현이 2·3회는 실점 없이 마무리하고 물러났다. 하지만 3-1로 앞선 4회말 길고 긴 수비가 전개됐다.

사이드암 윤중현에 이어 다시 사이드암 박진태가 KIA의 두 번째 투수로 나왔다.

박진태가 첫 상대 페레즈를 몸에 맞는 볼로 내보냈다. 최인호의 땅볼 때 선행주자는 잡았지만, 이성근의 우측 2루타가 나왔다.

그리고 1사 2·3루에서 '볼넷의 향연'이 펼쳐졌다.

박진태가 장지승·이원석과의 승부에서 연속 볼넷으로 밀어내기 실점을 기록했다. 다시 정은원에게 3연속 볼넷을 내주면서 승부가 3-3 원점으로 돌아갔다.

끝이 아니었다. 박진태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세 번째 투수 한승혁도 정재훈을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보내 3-4 역전을 허용했다.

허무한 역전 뒤 KIA 타선도 침묵에 빠졌다.

5·6회가 삼자범퇴로 끝났고, 7회에도 빠르게 투아웃이 나왔다. 최형우가 볼넷을 고르면서 모처럼 베이스를 밟았다. 이어 황대인이 김범수를 상대로 중앙 담장 넘어가는 역전 투런을 쏘아 올렸다.

장현식이 7·8회를 1피안타 4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은 뒤 마무리 정해영에게 마운드를 물려줬다. 하지만 경기는 승패 없이 끝났다.

정해영이 정은원에게 선두타자 안타를 허용했고, 희생번트로 1사 2루가 됐다. 하주석의 중전안타 뒤 정해영이 몸에 맞는 볼로 1사 만루 위기를 자초했다.

이어 페레즈의 타구가 멀리 외야로 뛴다. 중견수 김호영이 공을 잡자 3루에 있던 정은원이 스타트를 끊으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송구가 빗나간 사이 2루 주자 하주석까지 홈에 파고들었지만 아웃 판정이 내려졌고, 경기는 그대로 5-5 무승부로 종료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강경남 50개월만에 KPGA 투어 우승



강경남이 5일 나주 해피니스CC에서 열린 KPGA 코리아 투어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 최종라운드에서 우승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신문오픈, 연장 대결 승리 해남출신... 11승 중 3승 나누서



강경남이 5일 KPGA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해남 출신 강경남(38)이 50개월 만에 한국프로 골프(KPGA) 코리아 투어 대회 정상에 올랐다.

그는 자신의 11승 가운데 3승을 나누어서 따냈다. 2006년과 2013년에 1승씩 거뒀고 이번에도 나누어서 우승 소식을 전했다.

강경남은 5일 나주의 해피니스 컨트리클럽(파 72·7125야드)에서 열린 KPGA 코리아 투어 비즈플레이 전자신문오픈(총상금 6억원)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로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합계 19언더파 269타를 기록한 강경남은 옥태훈(23)과 연장전을 치른 끝에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이로써 강경남은 2017년 7월 진주저축은행 카이도 남자오픈 이후 4년 2개월 만에 투어 대회 왕좌에 복귀했다.

투어 통산 11승을 달성한 강경남은 우승 상금은 1억 2000만원을 받았다.

11승은 투어 다승 순위에서 최윤수와 함께 공동 7위에 해당하고, 현역 선수 가운데는 최다승이다.

투어 통산 최다승 1위는 43승의 최상호, 2위가 20승의 박남신이며 강경남 외에 김대섭이 10승, 배상문과 박상현은 9승이다.

강경남은 11승 가운데 2006년 중흥S클래스 골드레이크오픈, 2013년 해피니스 광주은행 오픈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3승을 나누어서 따내는 좋은 인연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도우미 보다 해결사 레바논전 손흥민 골 보고싶다

내일 월드컵 최종예선 2차전 ... '침대축구' 해결책 찾아야 프리미어리그서 인정받는 월드 클래스 공격수 모습 보여주길

태극마크를 달면 소속팀에서 보여주던 날카로운 해결사 본능 대신 동료들 돕는 도우미 역할에 더 충실해지는 벤투호의 '캡틴' 손흥민(29·사진)에게 레바논전을 앞두고 '과감한 골잡이'의 모습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7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레바논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2차전 홈경기를 치른다.

벤투호는 지난 2일 치러진 이라크와 최종예선 1차전 경기에서는 68%의 볼 점유율에 15개의 슈팅(유효슈팅 5개 포함)을 시도했지만, 무득점에 그쳐 0-0으로 비기는 결과를 떠안으며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을 향한 첫걸음을 무겁게 내디뎠다.

손흥민은 이라크전에서 왼쪽 날개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는 동안 전반 23분 단 한 차례 슈팅에 그쳤다.

볼을 이어받으면 동료에게 슈팅 기회를 내주는 도우미 역할과 더불어 코너킥 세트피스 키킥 역할에 더욱 충실했던 결과다.

손흥민은 벤투호 출범 이후 22경기 A매치에서 나서 4골을 터트렸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인정받는 '월드클래스' 공격수의 모습과는 사뭇 낯선 기록이다.

손흥민은 이라크전에서도 슈팅을 자제하고 더 좋은 자리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하는 모습이 많았

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이 분석한 이라크전 히트맵(주로 뚫 구역을 표시하는 지도)을 보면 손흥민은 중원 왼쪽에서만 주로 활약했다. 윙어의 역할에는 충실했지만 상대 위험지역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은 약했다.

후반전에는 움직임이 더욱 줄었다. EPL 경기를 치르고 이동해 이틀 만에 풀타임을 소화하느라 체력이 따라가지 못했다.

손흥민은 이라크전에서 해결사보다 도우미 역할에 집중하는 모양새였지만 6차례 크로스로 1개만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록적으로만 따지면 아쉬움만 가득한 결과였다.

결국 손흥민이 도우미의 짐을 덜어내고 해결사 본능을 더 살리지 않으면 7일 레바논전도 답답한 경기로 예상된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98위로 A조에서 가장 순위가 낮은 레바논은 '침대 축구'의 개연성이

더 높아서다.

벤투호는 지난 6월 월드컵 2차 예선 최종전에서 레바논을 만나 2-1 역전승을 거뒀지만 선제골을 내주며 '침대 축구'에 애를 먹었다.

한국은 전반 13분 역습을 허용하며 0-1로 끌려가다 후반전에 상대 자책골과 손흥민의 페널티킥 역전 결승골이 이어지며 2-1 승리를 따냈다.

2골 모두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됐다.

후반 5분 손흥민의 크로스에 의한 송민규(전북)의 헤더가 상대 공격수 머리 맞고 골절돼 동점골이 됐다.

후반 20분에는 손흥민의 침투패스를 남태희가 받아 드리블하는 과정에서 반칙을 따냈고, 손흥민이 페널티킥 키킥으로 나서 역전 결승골을 뽑았다.

이번 레바논과 2차전도 선제골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해결사' 손흥민의 활약에 팬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전남, 경남FC에 2-0 승리 23경기 '원정 무패' 기록

전남드래곤즈가 승리로 원정 23경기 무패를 이었다. 전남이 5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의 K리그2 2021 28라운드 원정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뒀다.

후반전 두 골을 몰아 넣은 전남은 6경기 만에 귀중한 승리를 챙기면서 원정 무패 기록을 '23경기'로 늘렸다. 또 승점 3점을 보탠 전남(승점 44)은 3위 대전 하나시티즌(승점 45)을 1점 차로 추격하게 됐다.

전반 5분 왼쪽으로 침투한 이석현이 중앙에 있던 알렉스에게 공을 넘겼다. 슈팅까지 이어졌지만 정확도가 떨어졌다. 이석현은 31분에는 직접 슈팅까지 날렸지만, 경남 골키퍼 손성현의 품에 안겼다.

공방전 끝에 전반전은 0-0으로 마감됐다.

후반 초반에는 경남의 기세가 매서웠다.

후반 5분 경남 윌리안이 역습으로 전남 수비를 흔들었고, 후반 11분에는 경남 임민혁의 오른발 슈팅이 골대를 살짝 벗어나면서 한숨을 돌렸다.

이후에도 경남의 공세가 이어지자 전경준 감독이 교체카드를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전남은 후반 18분 이석현과 이종호를 대신해 윌렉과 발로텔리를 동시에 투입했다.

그리고 발로텔리가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다.

후반 25분 알렉스가 찰라준 공을 잡은 발로텔리가 상대 수비수를 따돌리고 슈팅까지 날렸다. 아쉽게 상대 골키퍼에 막혔지만, 경기장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어 2분 뒤 가리디엔 전남의 골이 나왔다.

코너킥 상황에서 김현욱이 공을 띄웠고, 박찬용의 헤더가 이어졌다. 공이 골대 맞고 튀자 공격에 가담한 수비수 최호정이 공을 잡아 오른발로 경남 골망을 흔들었다. 2017년 9월 서울이랜드 시절 이후 4년 만에 기록한 골이다.

후반 30분에는 두 번째 골이 나왔다. 주인공은 발로텔리였다. 알렉스의 패스를 받은 발로텔리가 오른발로 골대를 가르면서 2-0을 만들었다.

경남 에르난데스가 승부를 뒤집기 위해 '친정' 전남을 상대로 맹공을 펼쳤다.

후반 추가 시간에 에르난데스의 헤더가 골대에 맞았다.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지만, 전남을 긴장시킨 장면이 됐다. 전남은 남은 시간을 잘 지키면서 적지에서 승점 3점을 챙겼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